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의 개혁주의 인간론 역할

하성만 (고신대 교수)

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2차와 3차와 4차가 공존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산업혁명의 시대들이 주는 중압감 속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식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대는 개혁주의 인간론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혼란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세대를 이룩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은 개혁주의 인간론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표현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할 것이다.

I.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개혁주의 인간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습이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식 기반의 기술 혁신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김인숙과 남유선, 2017:138).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떠오르는 주제어를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지속가능한 세대를 유지하고 계승해야 하는 당위적 사명들이 기독 지성인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마5:14-16; 28:18-20).

혹자는 로봇공학이나 통신기술의 괄목할만한 진보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가속화되며 문명사회가 세대의 종말로 치닫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의 경고성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의 때에 통신술이 발전하고, 지구촌의 먼 거리 지역 왕래의 시간이 단축되며, 지식 기반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분명 종말 현상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날은 통신술이 급속히 진보되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서울과 뉴욕과의 비행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며, 산업형 로봇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와 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들이 상용화될 시대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대 없거나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가 수년 안에 등장하며 교통 신호 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인간의 노동 복지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고용감소로 인한 불경기가 가속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김기표, 2016:62; 김인숙과 남유선, 2017:151). 또한 과연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각 기업들은 살아남거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창익, 2017:215). 따라서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개혁주의 인간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과 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아직은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요인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신 기술의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의 보급과 통신술의 발달 때문이다. 1981년부터 도스(DOS) 운영체제로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 단말기의 보급은 전화선을 이용한 쌍방 간의 통신과 함께 확장되었다. 하지만 1995년, 컴퓨터 단말기를 구동시키는 운영체제가 도스에서 윈도우(windows)로 바뀌고, 1990년대 중엽에 광케이블선을 이용한 전용 통신망이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되면서 다중네트워크 시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앨 고어 부통령(1993-2001)이 1993년에 추진한 “수퍼 하이웨이 전국망(nationwide super highway)” 사업은 2000년까지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사업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1994년에 신설된 김대중 정부(1998-2003)의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투자와 광케이블 전국망 구축 사업을 일으키고, 1998년에는 ‘지식정보화사회의 신지식인 및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계획’이 발표되고 1999년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 등은 다중네트워크 시대를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The Science Times, 2017.10.17.). 이들 일련의 사업들은 일방형이나 쌍방형의 소통방법으로부터 다중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컴퓨터 단말기의 운영체제의 발전된 기술과 다중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검색과 사이버 상에서의 거래 등이, 이제는 컴퓨터 단말기 대신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1992년에 최초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지만, 결정적 혁신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07년도에 주식회사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이

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으로부터 휴대폰의 사용으로 사람들의 선호도를 주도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의 기능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소형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각종 사물들에 감지기(sensor)나 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통합된 정보들을 제어장치를 통해서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하늘 위에 떠 있는 기상과 군사 및 상업용 인공위성을 비롯하여,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벼나 곡물을 얻는 농사기술에도 적용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논이나 밭의 곳곳에 온도나 습도 등을 확인하는 감지기(sensor)들을 설치해 두고, 물이 모자랄 때는 수로를 개방하여 자동으로 물을 대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온실이나 공장 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측정 분석하여 환기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막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얻어진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과 분석 및 판단과 제어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연구 분야의 핵심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로봇공학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전쟁터나 위험한 지역에서의 폭발물 제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의 활약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도움을 준다든지, 장애인이나 환자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의 통합 기술은 자동차나 선박 등과 같은 무인운송수단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운송수단의 발전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통합된 기술이 적용되며,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그 핵심 연구 분야이다.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량과 교통사고율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95%가 운전자 요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6). 이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무역업이나 도로의 신호등을 포함한 교통체계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며,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공장 소설이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다. 자율주행기술의 완성을 전체 6단계로 세분하고 있는데, 2단계인 ‘통합적 능동제어기술’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2년 후인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운전자가 완전히 필요 없는 단계인 4단계 기술에 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는 더 일찍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설계 실습실에는 자신이 설계한 물건이 3D프린팅으로 단번에 출력되어 시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작동 가능한 권총이나 사용 가능한 물건 등이 이미 이 3D프린팅 작업을 통하여 시판되거나 상용화 되는 수준에 와 있다. 나노기술은 컴퓨터 단말기를 작동시키는 미세한 칩(chip) 안에 무수한 기능들을 이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조밀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인지 및 탐지, 분석과 제어 기술 등의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ing) 분야는 컴퓨터 연산 방법에 일대 획을 긋는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¹⁾이라고 하는 현대물리학의 기초적 가설에만 머물러 있던 이론이 컴퓨터 활용에 적용되는 기술에 접목되고 있다. 직렬 연결하여 연산 처리되어 온 컴퓨터 연산의 처리 방식이 병렬로 연결되어 결과치를 예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산 처리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 결과치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등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빅데이터 분야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연산 및 제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8대 혁신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기술 분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 기술 분야들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급자족하던 시대로부터 벗어나 1차 산업시대로 불리는 터빈 시대 즉 터빈을 돌려서 얻어진 막대한 힘으로써 큰 기계들을 쉽게 작동하게 하던 시대를 넘어서, 2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구분되는 대량생산의 시대 즉, 자동차나 특정 생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으로서 3S²⁾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현대산업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도 제조나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과정에 2차 산업혁명의 특성들을 유지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통한 극대화된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무형물의 가치가 크게 증대한 산업시대를 의미한다. 서비스업 등으로 대표되던 산업들이 대중음악이나 게임, facebook,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다. 도서나 음악, 심지어는 금융 분야에서까지도 사이버 상에서의 상거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2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혜택 아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절정에 와 있다. 각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다중네트워크형의 소통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유·무형 가치의 물건들을 팔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량생산은

1)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적 이론으로서, 전자가 양자의 주위를 회전할 때, 돌고 있는 위치와 운동에너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는 전자의 회전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한 결과치를 찾아내어 연산하는 방식은 마치 0과 1이라고 하는 2진법의 연산 결과로서의 결과치 계산 방식이 아니라, 병렬 연결하여 결과치를 예상하는 방식의 확률적 결과치를 찾아내는 연산 방식을 의미한다.

2) 단순화(simplific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등의 특성들을 추구하는 시대를 가리킨다.

커녕 생산품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제품이나 협상, 계약체결, 대금결제, 물류과정 등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무형물의 가치 교환기술과 사이버 상에서의 다중 소통기술 등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어 이제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이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 산업혁명시대가 무형가치 기술의 증대와 다중소통으로 인한 정보 공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과연 인간의 지식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지 신학적 토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인간론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개혁주의 인간론 역할

4차 산업혁명시대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혁신의 새로운 산업시대이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기능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고유한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창조목적에 가장 잘 사용되도록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능력이 가장 잘 사용될만한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과연 인간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잘 사용되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론 2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었던 헨리 포드의 자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는 1914년 당시 노동자들이 받던 일당이 \$2.34이었는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는 두 배가 넘는 \$5를 지불하였으며, 노동시간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임으로써 노동계의 혁신을 일으켰다. 이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의 혁신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노동 복지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동 복지의 문제는 인화협동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문화명령의 본질적 속성도 아니다(창1:26, 28). 문화명령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생물들이기 때문이다(창1:26, 28).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직원의 감원이나 고용창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까?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모든 피조생물들을 이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인간론 역할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여전히 창조질서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자리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생물들을 다스리며, 인간들 간의 화평을 추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창1:28).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생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창1:26; Wenham, 1987:33).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른 피조생물들과는 구별되도록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라는 덕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을 때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덕목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엡4:24; 골3:10)³⁾.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밝힌 바울의 입장과는 달리, 베드로의 권면에는 약간의 지식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느껴진다. 베드로후서에는 ‘새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덕목들 중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 위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1:65-7).” 모두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덕목들이다. 이는 덕목의 내용들만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순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믿음이라는 덕목이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는 덕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덕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그 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는 것이다. 지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 중에 절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절정을 제어하는 역할은 절제의 덕목이다. 그리고 그 절제는 단회적이 아니라, 인내로써 유지되어야 하며, 이로써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쓴 참된 경건으로 나타나며, 그 경건은 형제를 돌아보는 형제우애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덕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이라는 덕목을 증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암시한다.

언급된 덕목들을 힘써 지킬 것을 명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말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소명에 대한 확신과 택함 받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굳건히 하라는 것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권면이다(벧후1:1).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며, 의와 평강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하며, 조화롭게 하는 덕이 있어야 하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 지식 위에는 지식을 절제하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3)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의 구절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새사람은 골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성을 지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필요한 덕목이 ‘지식의 절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바울의 권면에는 지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세우는 듯해 보이지만, 바울이 “참 지식”을 강조하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에베소교회와 골로새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들 교회들이 자신이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사역한 기간(행19:10)을 포함하여 거의 3년 동안의 결과물로서 얻은 열매들이었기 때문이다. 에베소교회와 골로새교회 이들 두 교회의 도시들이 로마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강력한 제1의 종교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같은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그것은 플라톤으로부터 형성된 강력한 이원론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의 영향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교회와, 두란노서원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기에 “참 지식”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참 지식’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세 번째 덕목인 지식에 대한 무절제는 인간창조 이후에 에덴동산에서 벌어진 가장 직접적인 타락사건의 요인이 되었다(창3:5). 지식의 절제에 대한 실패가 바로 선악과를 범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도한 행위는 반역행위임을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창3:4-6).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인간의 반역행위에 대한 증거 기록인 것을 보여준다. 즉 절제 없는 지식이 창조질서에 반역하는 행위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인간의 정체성은 남녀로 구성되어있다는 창세기1장 27절의 말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의 내용에 수긍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라든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복수 혹은 다수의 남자들이나 혹은 여자들을 부부로 인정하려 하는 행위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동물계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2)”라고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들이다.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의 내용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암수 짝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다른 피조생물들과 동일한 창조질서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성정체성이 동성이나 단수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남녀 복수단위로 정의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창1:27). 즉 성적지향에 따른 성 평등이 아니라, 남녀 간의 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

며, 한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그 가치에 있어서 우월할 수 없고 동등하며, 그 가정단위로 모인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각 가정들이 정복한 땅 안의 모든 피조생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그 통치행위를 하는 인간들끼리는 인화협동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이루는 가정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의 실현은 단순히 짝을 이루어 자기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다른 피조생물들과는 다르다(창1:22, 28). 인간은 자신이 이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생물들에게 창조주께서 위임하신 '의의 통치'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자존감이 충족되며, 진정한 행복에 대한 만족감이 성취된다(창1:26).

이러한 개혁주의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산업 환경에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원리이며, 신학적 토대이다. 즉 개혁주의 인간론은 남녀 가정 단위로 문화명령이 위임되어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올바른 통치행위가 있을 때 지속가능한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이를 위해서 제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경업과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혹은 전 영역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개혁주의 인간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3. 개혁주의 인간론의 신학적 토대: 하나님의 형상

개혁주의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이다. 성경에서는 형상($\epsilon\kappa$ tselem)이라는 단어가 모양($\epsilon\kappa$ in demuth)라는 단어와 상호교차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17회 사용되고 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25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혼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⁴⁾(Irenaeus, 130-202; from Irenaeus, ca. 180 A.D.) 때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그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Wenham, 1987: 29). '형상'은 외적인 요소를 뜻하고 '모양'은 내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기로부터 해석의 변화를 가져왔다. 종교개혁의 1세대 주자였던 루터와 2세대 개혁가였던 칼빈의 이들 두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래로 학자들은 이들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이며 상호교차적으로 상용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Berkouwer, 1984: 68). 마치 우리말에 애매와 모호라는 두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형상(이하 '형상과 모양'을 '형상'으로 사용)'이라는 단어는 '이미지(image)'를

4) 지금의 프랑스의 리옹(Lyon)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의 이름은 로마제국의 속주였던 갈(Gaul) 지방의 룩두눔(Lugdunum) 감독이었다. 초대교회의 교부요 변증가로서 영지주의를 가장 경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셨다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그 기능면에서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벌카우어(G.C.Berkouwer, 1903-1996)⁵⁾는 루터와 칼빈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신학자 바빙크(H. Bavinck, 1854-1921)도 두 단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Berkouwer 1984⁶⁾:69). 벌카우어는 이들 두 단어가 비록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분명하게도 창조주와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서술한다(Berkouwer, 1984: 69). 동시에 그는 이 용어의 사용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 정점에 놓는 것으로서, 창조질서의 유지를 위한 창조주의 대리자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This last is clear enough from the story in Genesis, which refers to God's decision, His plan, in creating man: "let us make man....." This creation, this creative act of God, is the high point of the whole creation, the aim, the purpose of the creation describes in the preceding verses of Genesis. (Berkouwer 1984:70)

하지만 벌카우어는 폰 라드(Von Rad, 1901-1971)가 지적하였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지만,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내용이 없다고 서술한다(Berkouwer 1984: 69, 70). 벌카우어의 입장은 형상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관계’는 가리키지만, 그 ‘관계’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것과 ‘지배권(dominium)’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벌카우어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 뒤에 ‘다스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와 같은 주장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까지 서술하기 때문이다(Berkouwer 1984: 70-72). 즉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이라는 단어가 ‘다스리는 지배권(dominium)’이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등식을 이루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Berkouwer 1984: 70).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도록 독특하고도 특별한 임무가 수행되도록 고안되었다고는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피조생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거나, 혹은 창세기 1장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 주권의 형상(image) 혹은 대리자(a representative)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에 관한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Berkouwer 1984: 71)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시편8:6-7을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석들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는 정당한 감사와 찬양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들은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주장은 되지 못한다고 반

5) 그는 네덜란드개혁교회(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GKN) 소속이었으며,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Free University)의 조직신학교수였다.

6) first edition 1962.

박한다. 그는 리델보스(H.N. Ridderbos, 1909-2007) 역시 시편 8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미약성과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표현하는 반증이라고 말한다(Berkouwer 1984: 71). 즉 벌카우어는 시편 8편이 형상과 주권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본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벌카우어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미국 칼빈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는 그가 죽기 2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는 책(1986)에서 좀 더 발전된 주장을 펼친다. ‘형상’은 ‘모양’은 동일한 뜻이며, 이 의미는 피조물에 대하여 다스리는 ‘지배권’을 의미하며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개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Hoekema, 1986:14). 또한 그는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지한 자(image bearer)’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한 점을 상기시킨다. ‘형상’의 개념에 대한 후크마의 결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 둘 다를 의미하고 있다(Hoekema 1986:73). 그가 말하는 구조는 ‘은사, 능력, 재능’ 등을 의미하고, 기능은 ‘인간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성들’, 또한 ‘인간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등을 의미한다고 서술한다(Hoekema 1986:73).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나 은사들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인간 혹은 창조주와 피조물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카우어나 후크마가 인용했던 바빙크의 입장은 매우 명료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바빙크는, 비록 그 형상에 대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들 단어가 분명하게 ‘관계’와 ‘지배권’으로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Finally, Scripture here and there tells us in what ways that image reveals and manifests itself openly. The full content of that image of God is nowhere unfolded. But Genesis 1:26 clearly indicates that image of God manifests itself man’s dominion over all of the created world (cf. Ps 8; Cor. 11:7). (Bavinck, 2004:533)

그의 표현에는 심지어 시편 8편의 내용이 인간의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고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낙원에 대한 묘사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서술한다(Bavinck, 2004:533). 즉,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을 뜻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 어디에도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심지어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이며 언약신학자로 분류되는 웬햄(Gorden J. Wenham, 1943-)까지도 인간창조의 목적은 동물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God's purpose in creating man was that he should rule over the animal world (v 26). Here this injunction is repeated and defined more precisely...Because man is created in God's image, he is king over nature. He rules the world on God's behalf. (Wenham, 1987:33)

이는 바빙크뿐만 아니라, 웬햄도 인간 창조의 목적이 동물계를 다스리기 위함이며 이것은 성경에 상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인간이 자연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1:27).

둘째, 인간은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으며, 이 둘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였다(창1:27).

셋째, 인간은 일부일처제로 창조되었다(창1:27).

넷째, 인간은 창조주의 뜻대로 지배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창 1:26, 28).

다섯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totally corrupted) 참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

여섯째, 인간의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일곱째, 지식은 절제의 덕목 아래에 있다.

여덟째, 지식의 상위 덕목으로는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의 덕목들이 있으며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고 유지 계승하려면 지식 상위의 덕목들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새 사람'의 가치에 기반한 인문사회학의 연구와 실습이 요구된다.

열 번째, '새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지식기반의 산업혁명시대를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열두 번째, 올바른 인간론 정립에 힘쓸 필요가 요구된다. 이는 참된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성취하게 하며, 가정의 존재가치를 증대시키며, 남녀의 상호 존중감과 역할의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 시대에서 가장

흔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준다. 인간의 창조목적과 목표, 인간의 구성요소,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의 의미,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결 요건, 이혼율의 감소, 가정을 통한 사회 정화능력의 기초 역량의 함양 및 배양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식산업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기반들이다. 이미 포스트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지식’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III. 나가는 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기초한 개혁주의 인간론의 토대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인간 창조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인간은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등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개혁주의 인간론은 명료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작용이 인간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학은 물론이고, 경제학과 사회학의 융합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기술공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심지어 융복합의 학문을 통해서 올바른 인권과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찾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인간론은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인간이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모든 문화 영역과 장소에서 수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의 뜻대로 소명과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을 대리자로서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창1:28).

정보통신술, 사물인터넷, 자율운행시스템과 운송수단, 나노기술, 3차원 인쇄술,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만 독특하고도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은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식은사는 피조생물들을 이롭게 다스리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다스릴 대상이 아니며, 서로 존중하며 협동하여야 할 대상이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의 덕목을 갖추어서 ‘참 지식’의 활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4차 산업혁명시대, 개혁주의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 참 지식, 절제

참고문헌

- 김기표. 2016, "4차 산업혁명과 학교교육", 평화학논총, vol. 6, no. 2, pp. 62-78.
- 김인숙 & 남유선. 2017, "문제해결을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협력방안 - 독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vol. 75, no. 0, pp. 137-155.
- 박찬국.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vol. 46, no. 0, pp. 313-348.
- 이창익. 2017.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문화비평. 31권 0호, pp. 209-254.
- 장재민, 최재성, 김태형. 2016. "주행환경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연구 제24권 제1호 pp.79-94,
- Bavinck, H. 2004. REFORMED DOGMATICS. Volume 2: God and Creation. Baker Academic, Grand Rapids, MI.
- Berkouwer, G.C. (trans.) Dirk W. Jellema. 1984. Studies In Dogmatics MAN: THE IMAGE OF GOD.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Grand Rapids, MI.
- Topping, Richard R. JOHN CALVIN AND THE IMAGE OF GOD: CREATION, REGENERATION, REMNANTS, AND RIGHTS
- Wenham, Gordon J. 1987. WORLD BIBLICAL COMMENTRAY: Genesis 1-15, Word Books, Waco, TX.